

국회 증액 예산 늘리려 심사 보이콧

보수 2야 "4조원 세수 결손 해결책 없다" 소위 가동 중단 법정시한 지키기 어려워져 ... 감액심사 철벽방어 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가동이 27일 이틀째 중단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한을 지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정부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잠정중지 방침을 밝혔고, 여당은 고의적 심사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불러 협의를 나섰으나, 장 의원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

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야당은 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

여야 갈등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000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야당은 '국채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일의 순서가 빨리 소위를 마쳐놓고 4조원가량의 세입 변동은 어떻게 보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소위도 안 된

상황에서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국회에서 삭감·증액한 것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세입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세출을 조정할 건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지 등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이미 발표하고 실행해 4조원 결손이 난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4조 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정식 제출하거나, 소위에 해결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가져오라 했더니 예산소위에서 닷새간 얼마 깎았다는 엉뚱한 자료를 내밀었다"며 "적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되며, 전체 얼마를 어디서 깎겠다는 총액 비율을 갖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보이콧'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감액심사에서 '철벽 방어'를 해온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나흘간 심의에서 감액 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한 상태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출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할 수 있는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야당의 한 예산소위 위원은 "야당이 완벽한 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어디서 예산을 깎고 총액을 어떻게 할지 대강의 안이라도 내라는 것"이라며 "농해수위·교육위·국도위 소관 부처에서 충분히 1조원씩 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을 '컨트롤'하는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소위 위원은 "기재부도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이 '오더' 내릴 사람을 압박해줘야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도 불구하고, 이틀째 '보이콧'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감액심사에서 '철벽 방어'를 해온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나흘간 심의에서 감액 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한 상태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출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할 수 있는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야당의 한 예산소위 위원은 "야당이 완벽한 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어디서 예산을 깎고 총액을 어떻게 할지 대강의 안이라도 내라는 것"이라며 "농해수위·교육위·국도위 소관 부처에서 충분히 1조원씩 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을 '컨트롤'하는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소위 위원은 "기재부도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이 '오더' 내릴 사람을 압박해줘야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李 "선거제 개편안 연말까지 노력"

이해찬 민주당 대표...당내 TF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당 실무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의 존중하는 뜻에서 태스크포스(TF)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연내에 당론 도출을 목표로 하는 사실상의 TF를 꾸려 물밑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은 27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은 원내대표 지휘하에 논의됐는데, 이제부터는 당이 책임지고 대야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원칙을 어느 선에서 지켜나갈 것인가, 야당의 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야 3당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선 당 정책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서 실무진을 모아 TF를 구성하고, 윤 사무총장 주도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입장 정리를 서두르도록 했다. 당 조직을 총괄하는 윤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도록 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개별 의원들의 이견을 힘 있게 조정하는 효과

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인은 "정개혁위 활동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만큼 당론도 그 안에 내놓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 "우리 당 당론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과거 수차례 공약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 당론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일부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당은 '연동형'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해 당론화한 적이 없다"며 "의정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성을 높이는 정도의 방안이 기존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전신 정당 포함)은 2016년 총선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모두, 연동형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법안소위는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문제대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중간 기착지 프라하를 방문한 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6번째 한미 정상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오후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일단 프라하로 이동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기에 앞서 우선 체코를 들르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체코에 머무르면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와의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체코 일정을 마치고 2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 뉴질랜드에 머무르면서 팻시 레디 총독 및 저신다 아던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평화당 전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7일 평화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음에 따라 공식이 된 전남도당위원장 박 의원이 대행을 맡았다.

박 의원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남도당 대표자 변경 신고를 마쳤다. 박 대행은 내년 초에 있을 정식 전남도당 개편대회까지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 의원에 대해 최근 당원자격정지 3개월과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 시설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내달 4일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

로 홍남기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어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 경제사령탑으로서 홍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에설치치료학과(D.C.S.)	15
		통합에설치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